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그리는 온 겨레의 마음이 대하가 되어 흐르는 2월명절이 눈앞에 왔다.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는 2월의 봄벌에도, 봄의 태동을 전하며 장쾌하게 녹아내리는 눈썹의 흐름에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어리여있는 듯하다.

온 겨레가 잊지 못하는 장군님의 사랑

절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의 마음안고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깃들어들었다. 그이께서는 평양지하철도의 역사를 장식할 변화들과 부강상들의 형성도안을 보시면서 거기에 남녘겨레들의 모습도 잊지 말고 잘 형성해달도록 그 주재사상적

내용과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하기에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저저마다 여기 《지하중전》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모습도 보게 되니 겨레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력력히 느끼게 된다고 말하곤 한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남녘동포들이 있었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온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자녀 한사람이라도 있든 않은 젊은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또한 자연의 광란이 제일동포들에게 재난을 몰아왔을 때마다 사랑의 위문금으로 재앙을 가셔주시는 그이의 온정은 참으로 눈물없는 전할수 없는 사랑의 대서사시였다.

언제나 남녘겨레를 생각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남녘의 동포들은 기쁨을 맛보아도 함께 맛보고 싶고 행복을 누려도 함께 누리시고 싶은 겨레의 일원이었다.

공화국인민들의 행복이 커갈수록 그이께서는 남녘의 동포들을 위해 더욱 마음 쓰시었다.

남녘동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마음은 분별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신 교시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이런분위기에서 남녘의 하늘에 먹장구름이 비끼면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비가 내리었고 남녘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심중에는 아픈 응어리가 지시었다.

에 가셨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면 남녘겨레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만 같다고, 하다못해 그들의 목소리라도 들을수 있을것만 같은데 저렇게 소쩍새만 처량하게 운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남녘동포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레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었다.

결에 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락원거리, 광복거리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이 좋은 집에 남녘동포들도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그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에 받들려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통일거리도 일떠섰다.

《지하평양》으로 불리우는 평양지하철도에도 남녘겨레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57 번째로 보내주시신 교원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모임 (2011년 4월 도표)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그리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오는 2월이다. 어느날 어느 한순간도 그리움 잊어본적 없는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매일 매 시각 그의와 함께 흘러온 이 나라의 세월이다.

강철같은 령장의 불날같은 그 미소라는 노래의 구절과 더불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우뚝이 안겨오는 2월.

해빛같이 따스한 그이의 미소는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고 그이께서 한숨도 놓아주시신 사랑과 정은 오늘도 이 나라 남녘로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공화국 어디에서나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을 느낄수 있다. 종산의 동몽뉴은 철의 기지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 령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폭포지는 주체철의 장쾌한 대하에 대해 어찌 꿈틀들 생각할수 있었는다고 하는 로동자들의 고백을 들을수 있고 드넓은 전야에 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시신 로지화전의 새 력사가

있어 오늘이 있다는 다수확농민들의 걱정을 들을수 있다. 과학자를 제정해주시었으면 하는 과학자들의 청을 들으시고 매년, 매월이 과학결과 같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온정을 전해가는 과학자들, 후대교육사업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그이를 못잊어 눈물짓는 교육자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떠나, 그이께서 지켜주시신 삶의 보금자리들 떠나 자신들의 인생과 아름다운 희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굳건히 다져진 최강의 군력을 보내주신 장군님 결코겹오신던 선군जी이 눈물겹게 어려오고 그이께서 물으니만큼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풍만한 열매로 주렁지는 자랑찬 현실을 보아도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찾아 달리던 아철렬차의 그 모습 눈앞에 어리여온다. 최근 몇달동안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렬차에서 속삭이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시다.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그날까지 언제 한번 집에서 편안히 발원잠을 잘것같이 못합시다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교시는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후텡게 적신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그리움속에 영생하신다. 민족의 아버지를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장군님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안겨주시신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것이 그리도 절통하여 오열을 터치던 인민들의 언 가슴을 녹여주시는 조의식장들에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늘 가슴깊이 안고 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장군님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바꾸어 모시자고, 그러면 민복이 넘쳐나고 나라가 흥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절세위인의 태양상이 빛나는 공화국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그 길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던가. 공화국의 일심의 단결력은 백배로 강해지고 군력은 최대로 다져졌으며 가는 곳마다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러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과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문수물놀이장, 평양야로원, 평양음악원, 평양애

육원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들이 훌륭히 일떠서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를 펼쳐주고 송신, 송화거리의 특색있는 대건축과 아름다운 구슬들을 꿰어놓은듯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자기의 훌륭한 자태를 자랑하고있다.

삼지연시와 마식령스키장,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연풍과학휴양소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경치좋은 곳들마다에도 문명의 별천지들이 솟아올랐다. 저 멀리 동서해기슭과 분계천마을, 북변의 산간 오지와 바다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이 땅 그 어디에도 사회주의 선명함을, 선경도시들이 황홀하게 솟아올랐다.

연계인이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에게 가장 값있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고결한 총정의 세계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은 현실로 꽃피고 장군님은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신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더욱 불타고있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며 죽음의 나라락에서 헤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품과 의지의 장자로, 불굴의 통일애국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더우기 우리 가정에 둘러주신 그이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딸애의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우리 가정에서 딸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기를 《축복》이라고 지어주시고 하시며 친히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태어나 고교성을 띤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사랑보다 먼저 이 몸을 따스히 감싸안아준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

축복이 자기 자신의 작품집 《태양의 축복을 노래합니다》에서 심금을 터치듯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딸애는 성장하였다.

그이께서는 축복이 태어났을 때 산모와 새 생명을 위하여 귀 락에서 헤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품과 의지의 장자로, 불굴의 통일애국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더우기 우리 가정에 둘러주신 그이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딸애의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우리 가정에서 딸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기를 《축복》이라고 지어주시고 하시며 친히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태어나 고교성을 띤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사랑보다 먼저 이 몸을 따스히 감싸안아준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

... 축복이 자기 자신의 작품집 《태양의 축복을 노래합니다》에서 심금을 터치듯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딸애는 성장하였다.

그이께서는 축복이 태어났을 때 산모와 새 생명을 위하여 귀 락에서 헤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품과 의지의 장자로, 불굴의 통일애국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더우기 우리 가정에 둘러주신 그이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없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딸애의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우리 가정에서 딸애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기를 《축복》이라고 지어주시고 하시며 친히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태어나 고교성을 띤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사랑보다 먼저 이 몸을 따스히 감싸안아준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

모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절을 보내주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느같은 사랑과 온정에 떠받들려 성장한 축복이는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라의 역군이 되기 위해 배우고 또 배우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의 은인이시고 영원한 태양이시고 나는 축복이에게 당부하곤 한다.

은혜로운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은 행운아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것을 바치려고...

그리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이 되라고 축복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총성으로 받들어모시라고... **리재흥 (비전향장기수)**



올해는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거창한 투쟁이 예고되어있는 의의로운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규모의 온실남새농장이 일떠선것이 어제 같은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온실남새농장이 건설되게 된다니 날이 갈수록 기대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을 영원히 존엄하고 위용높은 강국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기게 해준다.

고조되는 위인칭송의 열기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강철의 신념과 담력으로 부총각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의 행복과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고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기는 부총각국의 세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추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110년대를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도 진두에서 령도하시고는 **본사기자 김준경**

대진군의 앞장에 서시며

세계 떠돌이 일대가 완전히 친근해되고도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실남새농장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온실남새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남새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듦으로써 일떠세울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렇듯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실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 안녕을 위해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투쟁도 진두에서 령도하시고는 **본사기자 김준경**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렇듯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실수 있는것이다.

파 령도,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것은 바로 자력갱생이었다.

이런 숭고한 뜻을 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복철의 무더위,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자력갱생의 불굴을 세차게 지펴주시었다.

투철한 자주선념과 열화같은 조국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종합정력적 전락적지공의 경지에 올라서고 오늘에는 민족사대일체가 있어본적 없는 격동의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체제의 시대도 장엄하게 펼쳐놓을수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부총각국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친화제일위인을 우러러 세우는 21세기 세계정체계가 주목하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을 모시어 조선인민은 존엄높은 강국의 인민이라는 긍지를 한껏 터치고있고 조신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격찬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